

# 설리번·왕이 회동...미중 정상회담 '급물살'

### 몰타서 12시간 회담 '양국 관계 개선 솔직하고 전략적 대화'

### 고위급 교류 합의...바이든·시진핑 11월 APEC 만남 가능성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11월 회담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양국 정상의 '외교안보 책사'가 제3국에서 전격 회동했다. 백악관은 17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중국과 소통 채널을 열어두고 미중관계를 책임 있게 관리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6~17일 몰타에서 왕이 외교부장(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당 외사판공실 주임)을 만났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만난 이후 4개월만에 이뤄진 두 사람의 이번 회동은 이틀에 걸쳐 약 12시간 동안 진행됐다고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전화 브리핑에서 밝혔다.

백악관은 양측이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의 2022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 회담 대화에 기반

해 "솔직하고 실질적이며 건설적인 대화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측이 "미중 양자관계 주요 현안,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양안 문제 등 글로벌 및 역내 안보 현안을 논의했다"며 "미국은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주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측은 이 전략 소통 채널을 유지하고 향후 몇개월 간 미·중 간 추가 고위급 접촉(engagement)과 주요 분야 협의를 추진하기로 약속했다(committed)"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도 이날 발표문에서 회담 사실을 알리고서 "양국은 중·미관계의 안정과 개선에 관해 솔직하고 실질적이며 건설적인 전략적 소통을 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양국이 작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 정

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달성한 공동 인식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고위급 교류를 유지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미 아시아-태평양 사무 협의와 해양 사무 협의, 외교 정책 협의를 여는 데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양국 국민의 왕래를 더 지원하고 편리하게 만드는 조치 등에 관해서도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설리번 보좌관은 미·중이 경쟁관계이나 미국은 중국과의 충돌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대만해협 관련 현상 유지와 협력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평화와 안정 유지에 집중하고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전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또 미국은 대만관계법(미국이 대만에 자기방어 수단을 제공한다는 내용과 함께 유사시 개입할 근거를 담은 법)과 미·중간 3대 주요 공동성명(수교성명 등)을 잘 이행하고 있으며, 대만의 독립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

했다. 이와 관련, 왕이 위원은 "대만문제는 중·미관계가 넘을 수 없는 첫 번째 레드라인"이라며 "미국은 중·미 3개 공동성명을 준수하고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는 중국의 종전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또 "중국의 발전은 강대한 내생적 동력을 갖고 있으며 필연적인 역사 논리를 따르는 만큼 저지할 수 없다"면서 "중국 인민의 정당한 발전 권리를 박탈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도 거듭 확인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두 사람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정세와 우크라이나, 한반도 등 국제·지역 문제에 관해서도 토론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동은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이 오는 11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만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뤄진 만큼 정상회담 관련 논의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 中 자국 전기차 업체에 "중국산 반도체만 사용하라"

중국 정부가 자국 전기차 업체에 들어가는 반도체 등 전자부품을 중국산만 사용하라고 내부적으로 지시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요미ურ리는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중국 정부에서 산업정책을 담당하는 공업정보화부의 장관을 지낸 인사가 지난해 11월 중국 자동차 관련 업체들을 소집한 내부 모임에서 "중국 기업의 국산품 부품을 사용하라"고 구두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 외교 소식통은 이 구두 지시가 외국 자본을 배제한다는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장관을 지낸 이 인사는 중국산 부품 사용에 대한 수치 목표를 세울 것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차에 사용하는 반도체 등이 대상이다. 수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전기차 업체에 벌칙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요미ურ리는 이 조치에 대해 "세계적으로 급성장하는 전기차 분야 공급망을 국내에서 완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앞으로 미국과 일본, 유럽의 부품 업체가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 등 7개 부처는 이달 1일 발표한 '자동차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업무 방안'에서 자동차산업 공급망의 안정과 원활성을 확보하겠다고 공표한 안건을 검토하는 틀을 설립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를 통해 전자부품의 중국산 사용을 검사나 차량용 배터리 인증제도를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 日 기사다 내각 지지율 25% 정권 출범 후 최저 기록

기사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분위기 쇄신을 위해 13일 대규모 개각을 했지만, 내각 지지율은 오히려 정권 출범 이후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이니치신문이 16~17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30명(유효 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사다 내각 지지율은 지난달 조사보다 1% 포인트 하락한 25%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 10월 기사다 정권 출범 이후 가장 낮았던 지난해 12월 수치와 같다. 마이니치 조사에서 내각 지지율은 이달까지 3개월 연속 30% 선을 밑돌았다. 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아이신문, 교도통신 등 다른 언론사의 이달 조사에서 기사다 내각 지지율은 30~40%대를 기록했다. 기사다 총리가 언제까지 총리직을 계속하기를 원하느냐는 질문에 가장 많은 51%가 "빨리 그만 두기를 원한다"를 꼽았다. "내년 9월 자민당 총재 임기 때까지 하기를 원한다"가 25%, "가능한 한 오래 계속하기를 원한다"와 "모르겠다"는 응답이 각 12%였다. 13일 개각으로 기사다 내각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느냐는 질문에는 77%가 "높아지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연합뉴스

## "美 공화당 정권교체면 한국 방위비 분담 확대" 보수 헤리티지 재단 보고서

미국 공화당이 내년 대선에서 정권교체에 성공하면 한국이 지금보다 큰 부담을 지고 북한 방어를 주도하도록 해야 한다는 보수진영의 정책 제안이 나왔다. 17일 미국의 보수 성향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활동한 전직 관료와 보수 학자들은 지난 달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를 담은 '프로젝트 2025'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들은 국방부 정책 제안 항목에서 동맹국들이 재래식 방어에서 반드시 훨씬 더 큰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점을 대원칙으로 강조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동맹국들이 재래식 방어에서 반드시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며 "중국 대륙뿐만 아니라 러시아, 이란, 북한 위협의 대처에도 자신들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비용 분담(burden-sharing)을 미국 국방 전략의 핵심부로 삼아야 한다"며 "미국은 동맹국들이 그렇게 하도록 단순히 돕는 데 그치지 말고 강력하게 독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같은 원칙하에서 보고서는 대만, 일본, 호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이스라엘 등에 이어 마지막으로 한국에 대해서도 제안을 내놓았다. 보고서는 "한국이 북한에 대한 재래식 방어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해 더 큰 역할을 압박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연합뉴스



도네츠크주 공략 거점 마을 탈환한 우크라이나군. 우크라이나군이 17일(현지시간) 도네츠크주 클리시우카에서 우크라이나 국기를 들어 보이고 있다. 일리아 에올라시 우크라이나 동부군 대변인은 이날 이 마을을 수복함으로써 격전지인 바흐무트를 에워싸고 공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기후변화 대응조... "남극 바다 얼음, 역대 최소 면적으로 줄어"

### 영국 국토 면적 5배 사라져

남극의 해빙(바다얼음)이 관측 사상 역대 최소 면적으로 줄어들었다고 BBC 방송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남극해에 떠 있는 해빙 면적은 1700만㎢ 미만으로, 역대 최소 면적을 기록한 1986년보다 100만㎢ 작다. 9월 평균치보다도 150만㎢ 작은 수준이다. 이는 영국 국토 면적의 5배가 사라진 것과 같다고

BBC는 설명했다. 남극의 여름철인 지난 2월 해빙 면적은 177만㎢로 관측됐다. 이는 1979~2022년 평균 최저치보다 36% 적은 수치라고 영국 일간 가디언은 전했다. 이렇게 줄어든 해빙은 지구 온난화 등을 악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남극의 얼음은 태양의 빛 에너지를 대기로 반사해주고 인근 물 온도를 식혀주는 등 지구 온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해빙이 사라지면 바다는 더 많은 햇빛을 흡수할

수밖에 없고, 따뜻해진 바다는 더 많은 얼음을 녹이는 악순환이 벌어진다. 이에 해빙 소실은 남극이 지구의 '냉장고'에서 '열방출기'로 변하는 것과 같다고 BBC는 지적했다. 과학자들은 올해 기록적으로 따뜻했던 바다가 해빙 소실의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앞서 미국 국립해양대기국(NOAA)은 4월 기준 해수면 평균 온도는 섭씨 21.1도로, 역대 가장 더웠던 2016년 3월의 최고 기록인 21도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